

5·18 정신적 손배·성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이달 입법예고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질병 정의·보상금 차감 지급... 기념재단 지원·사업 구체화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관 내용 고시 등

5·18보상법 개정안이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5·18관련 배상·보상 재산정과 기념재단에 대한 지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정하고 있다.

7일 5·18기념재단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번 달 내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시행될 5·18보상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5개조의 법률에 새롭게 4개 조를 신설하고 1개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조항은 ▲5·18 관련질병 정의 ▲보상금 등 차감지급 ▲성폭력피해자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5·18 관련재단 지원 등을 담았다. 개정부분은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변경한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

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5·18보상법에 있지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부분들이 추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관리비(운영비·인건비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사업비만 지원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비와 사업비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 및 유족 복지사업',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학술사업',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지정됐다. 또 예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이 명시됐다.

이 시행령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에 관한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

시행령 2조로 신설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은 '보상지급기준'(지침)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되는 사람 등의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으로, 질병 또는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5·18 관련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의 원인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인지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보상금 등 차감 지급(시행령 21조)조항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에 의해 배·보상 받은 금액을 현재까지로 환산해 차감 지급하기로 한 법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손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민주화보상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이미 배·보상 받은 경우 현재까지로 환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를 환산하는 기준을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시행령 23조)은 5·18관련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운영하기로 한 5·18보상법의 구체적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는 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해야 하며,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은 고시해야하고, 운영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10월 법제처의 심사와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5·18보상법의 시행일인 12월 9일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같이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기념재단은 법적 근거에 따른 예산 확보를 비롯해 기념재단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0년 5월 그때... '금남로에 있었다'

5·18기록관 10일부터 특별전... 1~5가 주요 건물 재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10일부터 11월28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기획전 '금남로에 있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의향 광주와 민주의 거리 '금남로'라는 공간적 기록에 포커스를 맞췄다.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3·15의거와 4·19민주혁명, 6월 항쟁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전시실 내부는 1980년 5월 당시의 금남로 1가에서부터 5가에 있었던 주요 건물의 모형을 제작해 공간을 재현했다.

전시 주요내용은 3·15에서 4·19까지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에서 광주교 등 지역 고등학생들의 4·19학생시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각 구간별 사건들로 구성되며 1987년 6월 항쟁 금남로 대규모 군중집회의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들로 구성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일기 중 금남로 상황을 기록한 부분과 해외신문, 투사회보, 기자들의 금남로 상황 메모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도 선보인다.

특히 금남로의 과거공간과 그곳에서의 사건, 그곳에 있었던 인물들의 기억과 기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치 센서, 디지털영상,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첨단장비와 아날로그적 감성이 결합되도록 기록물 복본을 제작해 전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수요 분석 교육정보공개 제도 확대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수요를 분석한 정보공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국민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년 수요 분석을 통해 33종의 전남교육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최근 2년 간 홈페이지 주요 검색어, 부서별 주요 정보공개 청구 현황,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요청자료 중 검색률·청구비율·요청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다.

홈페이지 주요 검색어 120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위 검색어는 '교육감', 2021년은 '입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주요 검색어와 공개정보 제목을 일치하게 등록하고 이미 공개된 항목 등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했다.

김도진 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된 전남 교육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맞춰 공개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추석 우수상품 기획전'

우체국 쇼핑몰서 22일까지

광주시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우체국 쇼핑몰 '광주광역시 북구 추석 브랜드관'에서 '우수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우수 상품 기획전은 추석을 맞이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북구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브랜드관에서는 지역 내 16곳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산한 천연소재 뷰티 제품을 비롯해 수제 세제, 유기농 커피, 장류, 김부각 등 42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 품목 2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청 유튜브 채널 명칭 공모

광주 남구청 유튜브 채널 명칭 공모전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7일 "남구청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 제고와 남구청만의 특색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채널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광주 남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널 명칭은 남구의 특색을 15자 내외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명칭이어야 한다.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네이버 폼(naver.me/F2vAYIQ7) 링크를 통해 구독 인증사진과 함께 명칭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 선정은 오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잡초, 네 자리가 아니란다 7일 오후 광주시 서구청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유촌동 인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조건부)

MG NEW 정기적금 1년 **2.6%**(조건부)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조건부)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전사거리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광주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